

## 냉전과 열전의 경계에서 읽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성

[서평] 김태우(2021),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창비, 372쪽.

이 동 원\*

### 1. 전쟁으로 인한 시대의 역진(逆進)과 국제여맹 조사활동

김태우의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창비, 2021)은 1951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진 국제민주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이하 국제여맹) 한국전쟁 조사위원회 여성 21명의 조사 여정과 그 최종 보고서, 『우리는 고발한다』(*We Accuse*)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다.

국제여맹은 2010년대에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조명 되기 전까지는 소련과 국제공산당의 꼭두각시 조직, “공산당 전선조직”(communist-front) 정도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한국전쟁 조사 보고서 역시 과장된 정치선전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제여맹 아카이브 자료에 기반한 최근의 연구들은 국제여맹의 주요 리더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과 회원단체들이 공산당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고, 베트남과 알제리 등의 반식민주의 운동과 연대했음을 밝혀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란시스카 더한(Francisca De Haan)의 평가대로 국제여맹은 세계 곳곳에 산재한 진보적 좌파 여성주의 단체들을 아우르는 “진보적 좌파 여성주의 국제 우산조직”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국제여맹에 대한 이러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한국전쟁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영국 대표 모니카 펠턴(Monica Felton), 덴마크 대표 카테 플레론(Kate Fleron) 등 비(非) 공산권 대표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국제여맹 한국전쟁 조사위원회의 여정을 추적했다. 이는 저자가 “전쟁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인간성의 파괴에 대한 세밀한 추적”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삼았고, 이 책을 통해 “역사연구에 인간적 감성과 연구자의 상상력을 과감하게 불어넣는 ‘글쓰기 모험’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의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대표적 여성 리더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남자들 사이의 거인”이라 불렸던 모니카 펠턴이다. 펠턴을 중심으로 한 서술 전략은 이 책의 묘사가 그녀의 북한 방문기, 『내가 그곳에 간 이유』(*That's Why I Went*)를 주요하게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야말로 어떤 ‘애국자’라도 일순간 마녀사냥의 제물인 ‘반역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냉전시대의 폭력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펠턴은 제2차세계대전기 런던시의회(LCC, London County Council) 보급품위원장, 군수부(Ministry of Supply) 전시 민간인 보급품 담당, 하원 국가세출특별위원회 서기, 런던시의회 주택공공보건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전후 재건을 위한 뉴타운위원회, 피털리(Peterlee) 개발공사 총재를 거쳐 1950년 영국 최초의 뉴타운 건설을 위한 스티버니지(Stevenage) 개발공사 총재를 맡고 있었다. 영국의 뉴타운 사업은 런던의 과밀인구를 교외로 분산하고 저소득층에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복지국가 정책이었다.<sup>1)</sup> 다시 말해 그녀는 전쟁 중에는 영국을 지키며 나치에 맞섰고, 전후에는 영국 노동계급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영국의 선진적 사회보장 실현에 헌신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일어난 ‘잔혹행위(atrocities)’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행을 감행했던 것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연인원 5만 6천 명의 병력을 파병한 애틀리 노동당 정권의 한국전쟁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정치 생명을 건 도전이었고,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무모한’ 선택이었다.<sup>2)</sup> 그러나 펠턴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영국은 미국의 마셜 원조(Marshall Aid) 수여와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막대한 국방비 증액으로 노동당 집권 이후 추진했던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확대 정책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었다. ‘복지정책의 희생’은 ‘시대의 역진(逆進)’ 현상을 초래했고, 펠턴은 사회보장 계획을 퇴보시키면서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했다. 펠턴은 국제여맹의 초청을 받고 북한 방문을 결심했을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45년 스티버니지는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희망의 일부분이었다. 그 희망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스티버니지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sup>3)</sup>

1) 후지메 유키(藤目ゆき)(2013), 「모니카 펠턴과 국제여성민주연맹(WIDF)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사회와 역사』 100, 279~292쪽.

2)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시기에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컸다. 제27여단과 제29여단으로 구성된 영국 지상군은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시작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영국군은 1,078명이 전사하고 2,76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9명이 실종되고 978명이 포로가 되었다. 영국군 전사자 중 885명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박동찬(2014),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10~316쪽).

3) 후지메 유키(2013), 293쪽.

## 2. 사회주의 평화운동 ‘마녀’들의 다양성과 반식민주의

물론 국제여맹 한국전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21명의 여성들이 모두 펠턴과 같은 동기에서 북한행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21명의 조사위원 중에는 소련, 중국,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 ‘확실한’ 공산국가 4개국 대표 6명이 포함되었고, 캐나다 대표 노라 로드, 오스트리아 대표 에바 프리스터, 서독 대표 릴리 베히터, 동독 대표 힐데 칸 등 공산당원이거나 최소한 사회민주주의적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공산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유엔군의 침략’과 ‘폭격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행을 결심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책이 조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로 주목한 영국의 모니카 펠턴, 덴마크의 이다 바크만, 카테 플레론 등은 조사위원회 내의 ‘비주류’로 보인다. 이는 노라 로드 조사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환영만찬 답사로 “우리 모두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 우리들 중 서구 국가들로부터 온 조사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111~112쪽)라고 연설한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치적 주장이 유지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펠턴과 플레론의 항의에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했던 노라 로드는 그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다음 날 첫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연설은 개인 입장일 뿐이며 앞으로 정치적 연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조사위원회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소련의 옵산니꼬바, 중국의 바이량 등은 펠턴과 플레론을 “한국과 아시아 여성들의 고통”과 “미국 자본주의자들의 사악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 여성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펠턴과 플레론은 “사

전에 만들어진 결론”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면 전체 여정을 포기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 대목은 펠턴에 공감하며 이야기에 빠져들던 독자들에게 책 전반부에서 가장 큰 긴장감을 선사한다. 영국의 전쟁 정책에 맞서 ‘반역자’ 낙인을 무릅쓰고 북한행을 선택했던 펠턴은 조사위원회 내에서도 “불편한 존재”이자 이질적인 ‘경계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팽팽한 갈등과 긴장감은 소련 대표 옵산니꼬바의 발언과 놀라운 행동으로 ‘동화 같은’ 결말을 맺게 된다. 옵산니꼬바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며 “우리가 협력적 정신 속에서 함께 일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사과와 화해의 의미를 담아 펠턴과 플레론의 볼에 키스했고, 회의장에는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119쪽).

저자는 이 내용이 1953년 출간된 펠턴의 회고록에만 등장하지만, 이후 ‘독립적 참관인’을 자처했던 플레론을 포함한 다른 조사위원들에 의해 조작이나 왜곡으로 비난당하지 않았으므로 믿을만하다고 보았다(120~122쪽). 독자의 입장에서 이 대목은 너무나 아름다워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이지만, 조사위원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엔 참전국인 영국, 덴마크 조사위원의 참여가 중요했던 점을 고려한 소련 대표의 결단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저자가 강조한 대로 국제여맹 조사위원회에는 동구권이나 서구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쿠바, 알제리, 튀니지, 아르헨티나, 베트남 대표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국제여맹의 대의라 할 수 있는 반파시즘에 공명하면서도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졌던 ‘제3세계’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위의 논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는 조사위원회에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펠턴과 플레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 3. 폭격으로 초토화된 북한의 현실과 조사위원들의 변화

조사위원회의 실제 조사는 1951년 5월 16일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고, 5월 27일 김일성과 짧은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중국인민지원군의 ‘제2차 춘계공세’가 시작되어 동부전선에서 현리 전투(1951.5.16~22), 용문산-화천 진격전(1951.5.17~28), 대관령 방어전투(1951.5.20~25)가 연이어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sup>4)</sup> 그야말로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북한에 입성한 것인데, 조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선에 양측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후방지역 조사의 상대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저자가 전작인 『폭격: 미 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창비, 2013)에서 상세히 그려냈듯이, 1950년 11월 1일 중국군 제1차 전역이 시작되면서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8기병연대는 괴멸적 피해를 입었고,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11월 5일 “소각과 파괴를 위한 초토화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는 강경한 군사노선으로의 급선회였고,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설비와 시설, 마을은 군사적이고 전술적인 목표물이 되었다.”<sup>5)</sup> 1950년 11월 극동공군의 소이탄 폭격으로 북한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와 마을은 60~90%의 파괴율을 보일 정도로 초토화되었고, 초토화정책은 유엔군의 후퇴와 함께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38선 이남의 남한 일부지역까지 확장되었다.<sup>6)</sup>

국제여맹 조사위원들은 신의주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소이탄 대량폭격작전의 결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파괴된 건물 아래 토굴을 만들어 생활하거나 땅을 파고 거적을 엮어 만든 토

4) 온창일 외(2010), 『6·25전쟁 60대 전투』, 황금알, 219~234쪽.

5) 김태우(2013), 『폭격: 미 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80~290쪽.

6) 김태우(2013), 291~331쪽.

막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신의주와 평양 시민들은 소이탄 폭격 당시 미 공군의 저공 기총소사와 투하 직후 시한폭탄 투하에 의한 추가 희생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증언했는데, 이는 초토화정책이 설비와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4~5장).

평양 조사 이후 조사위원회는 4개조로 나누어 한반도 최북부(평안북도과 자강도), 평안남도 남서부(남포시와 강서군), 북강원도(원산시, 문천군, 철원군), 황해도(안악시와 신천시) 지역을 조사했다. 펠턴은 노라 로드(캐나다),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쿠바), 마리아 옘산니코바(소련), 에바 프리스터(오스트리아), 리칭(중국)과 한 조가 되어 황해도를 조사했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펠턴과 조사위원들은 이 지역에서 폭격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과 현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증언을 청취했다.

펠턴을 비롯한 조사단은 황해도 지역 조사에서 증언의 진실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다. 폭격 피해 상황을 답사했던 신의주나 평양과 달리 안악과 신천 조사의 피해자 혹은 유가족 증언 청취는 주로 ‘선발된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의 학살이나 고문, 성폭력 관련 묘사가 지나칠 정도로 잔혹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모든 증언들이 ‘미군’ 혹은 ‘미군 통제 하의 한국군’만을 가해 주체로 지목했다. 평안남도 남서부 지역을 조사한 플레론 역시 “이곳에는 오직 미군만이 존재했다”고 단언하는 현지인들의 증언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아마도 같은 의심을 품었을 독자들을 위해 만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일본군이 얼마나 잔혹한 군사작전과 대민활동을 펼쳤는지,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 일본군 출신들이 주도한 강경진압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성을 보였는지 설명한다(219~226쪽). 그리고 독일군과 소련군의 사례, 유엔군과 한국군의 사례를 통해 잔혹한 전시 성폭력이 20세기 전쟁사에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킨다(248~259쪽).

기존 연구에 기반한 이러한 ‘보충 설명’ 외에도 저자는 최근 연구사에서 황해도 지역 학살 주요 주체로 지목된 우익치안대의 존재가 국제여맹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원인을 “1차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 통역원”에 의한 “정보 조작”이었을 것이라고 과감하게 추론한다. 저자는 조사위원들의 개인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했음을 들어 조사위원들이 한국 우익청년들의 학살 가담을 ‘고의 누락’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고, 황해도 지역 구술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구술자들을 북한 당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수의 통역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북한 정부’가 정보 왜곡의 진정한 주체였다고 추정한다(226~235쪽).

펠턴을 비롯한 조사단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겠지만, 저자는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했던 펠턴과 플레론 등이 “구체적 인터뷰 내용과 절규하는 광경이 수일간 반복되면서”, “매장지 주변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거나, 같은 곳을 향해 울고 또 우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거듭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235~237쪽). 그리고 이들은 귀국 후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수난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북한 현지조사 경험을 통해 평화주의적,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강화했다. ‘진실의 기록, 국적을 초월한 여성들 간의 우정, 그리고 평화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펠턴은 귀국 후 영국의 개혁정책 대신 북한여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조사위원들은 자국 여성단체를 활용해 북한여성과 아이들을 직접 돕기 위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플레론과 바크만처럼 자유주의적 정치성향의 덴마크 조사위원들이 북한여성 원조에 적극적으로 임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은 북한지역에서 다수의 “타협할 수 없는 진실들”을 보았고, 이는 펠턴의 표현대로라면 “시체가 매일 쌓여갔다”는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이다(314~317쪽).



#### 4. 이 책의 연구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

이 책의 첫 번째 미덕은 저자가 서장에서 잘 정리했듯이 그간 연구자들에게조차 ‘정치선전물’로 여겨졌던 국제여맹 보고서를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사실일 것이다. 43쪽 분량의 팜플렛, 『우리는 고발한다』(*We Accuse*)는 “Report of the Women’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U.S.A. and Syngman Rhee troops in Korea”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과 한국군의 ‘잔혹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보고서였고, 소련과 북한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저자는 국제여맹 자체가 공산주의보다는 반(反)파시즘, 반(反)식민주의, 반(反)인종주의적 지향을 가진 ‘진보적 좌파 여성주의 단체’이며 조사위원들이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구체적 여정, 개인 기록물을 통해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또한 이 책은 그간 남북한현대사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해 온 남북한 자료와 미국, 러시아 자료를 넘어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체코어 자료의 접근 및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온라인 번역기의 적극적 활용은 단지 자료 활용의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사로서의 냉전사/평화사 연구’라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한국전쟁 연구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정전(停戰) 상태의 한국에서 나고 자라 여전히 냉전적 체제와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평자를 비롯한 독자들에게 ‘냉전의 마녀’가 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던 모니카

---

7) 1951년판 원본 책자는 43쪽으로 구성되었고, 『냉전의 마녀들』은 원본 책자의 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다른 편집 형태이지만 24쪽 분량의 pdf 문서를 통해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4493220-WIDF-1951-Report-We-Accuse.html>)

펠턴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군사분계선에 의지한 평화’, ‘전쟁 같은 평화’라는, 익숙하지만 모순적인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sup>8)</sup>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저자가 출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매년 끊임없이 등장하는 남성 전쟁영웅들(war heroes)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평화영웅(peace heroine)의 탄생”이라는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취이다.<sup>9)</sup> 자료적 한계로 모니카 펠턴, 카테 플레론 등 소수의 조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쿠바 아바나(Habana) 거상의 딸로 23세의 변호사였던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미군 전쟁정보국(OWI) 대령 출신이었던 덴마크의 이다 바크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가 수니토와 결혼한 네덜란드 변호사 트레이스 수니토 헤일허르스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조사위원들은 또 얼마나 기구하고 ‘영웅적인’ 삶의 궤적을 걸었을 것인가?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이 국제여맹과 모니카 펠턴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발생한 북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이다. 조사 주체인 국제여맹 조사위원들과 ‘잔혹 행위’의 피해자이자 조사 객체로서 등장하는 북한 여성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관계라 할 수 있

---

8) 자료 활용의 확장과 ‘지구사로서의 냉전사 연구’, ‘경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천착이라는 면에서 이 책은 정병준의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둘베게, 2015)을 떠올리게 한다. 정병준의 ‘저자의 글’에 의하면 현앨리스는 “일본의 신민, 미국의 시민, 남한의 국민, 북한의 공민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경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좌익, 북한의 스파이, 미국의 스파이이라는 공존하기 어려운 극단적 정체성을 강요당했다. 그녀는 한국 근현대사가 세계체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뿌리 뽑힌 존재였으며, 늘 조국을 찾아 방황하는 방랑자,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런 경제적 삶은 한국 근현대가 경험한 파국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앨리스와 모니카 펠턴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지구사로서의 냉전사/평화사’ 이해에 한걸음 다가서는 길일 것이다.

9) 창비 블로그 책소문, 『냉전의 마녀들』 김태우 작가 인터뷰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https://blog.naver.com/changbi\\_book/222447302761](https://blog.naver.com/changbi_book/222447302761))

다. 게다가 이 책은 조사 여정을 중심으로 한 기행문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을 모니카 펠턴의 시선에 붙잡아 둔다. 이에 따라 북한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대부분 ‘전쟁 희생자’로 그려지는데, 박영자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방식은 전쟁의 야만과 여성의 고통을 밝히는 데에는 유의미하지만, 여성을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타자로 인식시키는 경향이 있다.<sup>10)</sup>

물론 날카로운 독자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책 곳곳에 숨어있는 북한 여성들의 주체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낯선 외국 여성들을 향해 “세계에 알려달라.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했고(263쪽), 파병국인 영국의 조사위원 모니카 펠턴에게 결혼생활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은수저를 선물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는 관용과 연대의 모습을 보였다(278~279쪽).

따라서 저자가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 제안한 대로 우리는 국제여맹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70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왜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전쟁 수행 방식은 왜 그토록 잔인했던 것인지 성찰함과 동시에(318~319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서로를 알리고 이해할 수 있을지, 서로에게 관용과 연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진지하고 집요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언젠가 서로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말이다.

10) 박영자(2017), 『북한녀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알앤비, 235~236쪽. 박영자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후방에서 여성들이 ‘창조와 생산의 주체’로서 활약했으며, 이것이 이후 ‘혁신적 여성 노동자’와 ‘혁명적 어머니’라는 이중역할론으로 북한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